

AGAIN 기도회 특별메세지 Ⅲ.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담을 그릇에 집중해야 합니다.

1. 어게인 기도회

어게인 기도회의 중점이 호렙산이다. 호렙산의 핵심은 '출애굽'이다. 출애굽의 핵심은 무엇인가?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의 목적을 물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구원하실까?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이다. 왜 미국은 목숨을 걸고 포로로 잡혀 있던 라이언 일병을 구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라이언 일병은 미국'이다.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다. 국민이 없는 영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이언 일병처럼 국가의 모든 것이 동원되어 구원해야 하는 존귀한 존재들이었다.

2. 생존에서 영광으로

[출애굽기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생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셨다. 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던 호렙산이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 살게 되는 구체적인 삶의 기준인 언약을 주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생존'을 위해 살아갔던 그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존재적 전환이다.

3. 존재적 사고

애굽 노예의 생존적 삶과 하나님 백성으로의 전환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고와 생각'의 전환을 말한다. 애굽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의미없는 행위 중심적 삶은 결국 방향성을 잃는다.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존재 중심적 사고를 해야 한다. 존재 중심적 사고란 행위의 이유를 아는 것이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 말한다. 화살을 쏘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다. 그런데 방향 없이 날아간다면 의미가 없다. 화살은 정확하게 과녁 중심으로 날아가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언약 중심의 삶은 화살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는 삶을 말한다. 이 삶이 만족을 준다. 진짜 기쁨을 준다.

4. 그릇을 만든다.

출애굽은 하나님 자녀들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언약이며, 너희를 통해 그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약속이다. 호렙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변화되는 곳이다. 언약이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분별력은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한다. 존재적 사고를 통해 영원의 그릇에 능력을 담게 한다. 그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예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적 그릇에 능력이 담겼다. 그때 예수님의 리더십과 능력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고, 아름다운 것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왕이지만, 그분의 능력은 예수님의 신의 성품 안에 담겨 아름답게 빛이 났다.

5. 능력이 아니라 그릇

(1) 외부의 적 골리앗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건은 '골리앗' 사건이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대표적인 '능력 대결'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다. 조건으로는 절대 불리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은 언약한 다윗에게 능력을 주어 골리앗을 이기게 하였다. 놀라운 사건이다. 이것으로 그는 국민적 영웅이 된다.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연호한다. 높아졌으며 집중된 사람이 되었다.

(2) 다윗의 내면이 준비되다. 그릇이 준비되다 - 아돌람

다윗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목동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전사 다윗을 보고 있다. 이런 다윗의 삶 뒤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윗을 연단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 능력을 맞본 다윗에게 다음 단계의 더 큰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담을 존재로 연단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곳이 바로 '아돌람'이다.

[사무엘상 22:1-2]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모세처럼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이집트 왕자의 모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는 화려한 삶에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전국에 수배된 지명 수배자의 삶). 그가 피한 곳이 아돌람이다. 그곳으로 다윗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을 경험한 다윗에게 아돌람의 사건을 주셨겠는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부르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이 아닌 (비극적으로 사울은 사람의 왕, 세상의 왕이 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 주시는 것이다. 세상의 왕은 능력으로 인정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담을 존재의 그릇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3)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다윗은 아돌람에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과 직면해야 했다. 자신도 도망자인데, 자신에게 온 사람들은 더 형편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생존'의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아이러니하다. 다윗도 '생존' 끝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생존' 끝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들은 골리앗처럼 원수와 적이 아니다. 칼과 돌로 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다윗의 아돌람 생활을 생각해보라.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환난,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치유하고, 보듬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captain'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아돌람 굴의 우두머리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이다. 그 왕은 자신보다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왕이다. 자신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 안에 남의 어려움까지 담을 줄 아는 진정한 왕이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왕 '예수님의 모습'이며, 사람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그들의 영원한 왕이었던 다윗을 떠올린 것이다. 그것이 가장 왕 다운 모습이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골리앗을 이긴 능력 싸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능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골리앗은 능력이며, 아돌람은 희생이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보다 아돌람에서 400명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 능력보다 희생이 어려운 것이다 (골리앗은 능력이다. 아돌람은 희생이다). 희생은 철저하게 나의 내면이 부서지는 과정이다. 내 실체를 보는 시간이다. 그곳으로 가야 그릇이 된다. **세상 그릇이 부서질 때 비로소 진짜가 보인다. 오늘 그 자리로 가야 한다. (자기 부인의 삶이 제자의 가장 중요한 삶이다)** 희생만이 영광으로 간다. 희생만이 남는다. 진짜 승리이다. 한 명이 400명을 살렸다. 열매이다.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어제인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볼 마음을 계속 부여하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담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연단은 그와 같은 것이다. 나도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힘든 아돌람 굴의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오늘 아돌람 굴의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며,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라.

[사무엘하 8:14]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능력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실 것이다.